

러시아 考古學에 있어서 自然科學의 適用

- 舊石器時代 -

李 憲 宗*

목 차

- I. 머리말
- II. 이론과 자연과학
- III. 자연과학의 적용
- IV. 맺음말

I. 머리말

러시아에 구석기시대 유적이 있음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871년 이래 체르스키(I.D.Cherski), 체카노브스키(A.K.Chekanovski)에 의해 조사된 이르쿠츠크의 바엔느니 고스피탈유적의 발견 부터이다(Палеолит СССР, 1984, Деревянко, Маркин, Васильев, 1994). 체르스키는 당시 고고학적, 지질학적, 고생태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발견된 구석기문화를 설명하였다. 이것이 러시아 구석기시대 연구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구석기연구사는 체르스키의 연구가 시작된 이래 벌써 120년이 넘었다. 그 기간 동안 정치사적으로 많은 변동과정을 밟아왔고, 인텔리겐차들의 사상적 체계자체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그들의 학문을 대하는 자세도 그에 따라 달라졌다(Ковенникова, 1992). 과거 황제시대 당시 역사적 서술은 신이나 황제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서술을 하였다면 공산체제 당시에는 사회발전단계론에 따른 역사해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고고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러시아가 소련연방체제로 전환된 후 초기의 고고학자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고고학적 연구나 해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의 관심은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어 폭넓게 전개되었다. 그들은 발굴된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인류의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 그 발전과정과 결과에 대해

*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른 시기부터 고고학 이외에 민족학, 인류의 기원문제, 소련 영토 안에 거주하는 종족들의 기원문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민족에 대해서도 그러한 연유에서 오래전 부터 시도된 주변 동북아시아의 여러 인종들에 대한 연구결과와 더불어 알려지게 된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근대고고학이 성립된 이래 고고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타학문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연구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체르스키가 시도했던 것 처럼 다양한 자연과학적 연구를 고고학에 수용하려는 시도도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한 경향은 구석기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II. 이론과 자연과학

러시아 구석기시대의 연구에서 단계론이 중요한 이론¹⁾으로 정착한 것은 1920년대 부터이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예피멘코(P.P.Efimenko)는 19세기 말-20세기 초에 페트리(B.E.Petri), 가라드초프(V.A.Gorodtsov), 본치-아스마로브스키(Bonch-Osmolovski) 등이 따르던 유럽의 진화론적 해석을 포기하고 처음으로 러시아 평원, 우크라이나, 카프카즈, 시베리아의 문화를 단계론(стадиализм)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당시의 학자들은 그의 영향으로 구석기시대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구조의 복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우리에게 주거지 고고학으로 알려져 있는 ‘고사회학적(палеосоциологическое) 연구가 당시 그들에게 가장 관심있는 연구 경향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주도했던 학자들은 사스노브스키(G.P.Sosnovski), 오클라드니코프(O.P.Okladnikov), 자마트닌(C.N.Zamyatnin), 바리스코브스키(P.I.Boriskovski) 등이다. 예피멘코는 1930년대 카스톤키(Kostenki) I 유적을 조사한 후 그 유적에 거주하였던 구석기인들의 생활전반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사회발전단계론에 입각한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복원은 대체로 기계적인 해석에 국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당시 발굴을 통해 얻어지는 유물이나 유적의 정황에 대한 자료가 최근의 발달된 연구방법론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오클라드니코프나 게라시모프와 같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족지 자료를 자주 활용하였다. 따라서 30년대 이래 러시아 고고학자들은 인류학이나 민족지에 대해 매우 조예가 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와 이론적인 한계는 결국 고고학자들의 전통적인 인식체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1) 2장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러시아 구석기시대의 이론적 발전과정은 데레비안코 (A.P. Derevianko) 등의 저서 《구석기학》(1994)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로 활용하였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필자에 의해 보충설명되었다. 세계고고학계에 러시아 고고학이론을 오랫동안 알려왔던 클레인(L.S.Klejn)이 Current Anthropology에 실은 논문 《A Panorama of Theoretical Archaeology》(1977)와 그의 이론을 비판한 글들에 대한 반론 및 추가 설명을 모아 종합적으로 재 서술하여 러시아어로 최근에 출간한 동일명의 저서 및 《고고학의 형식학》(1991) 등에서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였다.

30년대 이후 러시아 고고학이론을 지배해 왔던 사회발전단계론의 기계적인 대입은 계속 되는 유적의 발견을 통해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를 설명하는데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라가초프(A.N.Rogachev)는 지역-문화발전론(концепция локально-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는 각 지역을 점거한 구석기인들이 동일한 시간에 존재하였다 할지라도 각 집단이 소유한 기술적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른 문화를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이 집단들이 모두 동일한 문화발전과정을 밟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 이론은 각 지역에 따라 각각의 독자적인 문화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있다. 또한 석기만으로는 유적의 연대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우선 유일한 과학적 방법인 지층만이 정확한 유적의 연대를 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구체적인 역사적 접근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의 후자의 개념은 시베리아 구석기학자인 19세기말 아폰토바 가라(1884년)를 연구한 사벤코프(I.N.Savenkov)에 의해 이미 언급된 생각이었다. 어쨌든 이러한 연구경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구석기시대를 포함한 러시아의 고고학은 곧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학문임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역사 중 거의 대부분은 고고학을 통해서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문화발전론은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구석기시대를 비롯한 고고학의 각 시대를 설명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이론으로 남게 되었다.

시베리아에서 특별한 학문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오클라드니코프(A.P.Okladnikov)는 문화-편년적 관점에서 구석기시대를 이해하려 했던 단계론자였다. 그는 말타유적군을 제외한 모든 구석기문화는 동일하므로 같은 발전단계를 밟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60년대 중반에 북아시아 구석기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 오클라드니코프는 각기 다른 연대를 가진 유적들 간의 연관성의 부재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전통의 단절'로 설명하였다. 물론 그 역시 라가초프에 의해 주창된 지역-문화발전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시베리아 구석기학자들이 60년대 접어들어서야 지역-문화발전론을 수용하게 된 것은 오클라드니코프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따른 학자로는 아브라모바(Z.A.Abramova), 바실리에브스키(R.S.Vasilievski), 키릴로프(I.I.Kirillov), 마차노프(Yu.A.Mochanov), 디코프(N.N.Dikov), 콘스탄티노프(M.V.Konstantinov), 아스타호프(C.N.Astakhov) 등 대부분의 시베리아의 1세대 구석기학자들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오클라드니코프의 제자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시베리아의 구석기학자들은 각 지역간에 형성된 문화의 차이 뿐 아니라 각 문화들 사이의 공통성을 발견하면서 구석기시대의 물질문화의 보편적인 법칙성을 밝히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지역-문화발전론에서 점차 문화-역사적 접근(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подход)이라는 개념으로 발전,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학문적인 경향을 따르

는 학자들을 포함한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러시아 구석기연구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왜 러시아에는 그렇게 문화가 많은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라가초프 이후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러시아 구석기시대 연구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적들을 각 지역별로 적절히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러시아 구석기연구에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잡았던 것이다.

60년대 이래 통계학을 활용한 연구가 러시아 고고학계에도 시도되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서구의 고고학적 경향과 맞물려 중요한 연구 과제로 제기되었다(Мартынов, Шер, 1989; Холушкин, 1981; Деревянко, Фелингер, Холушкин, 1989). 대표적인 학자로는 홀류슈킨(Yu.P.Kholushkin)을 들 수 있다²⁾. 홀류슈킨은 오래전 부터 구석기시대의 문화유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베리아지역의 구석기시대 유적들과 상호 비교, 문화권역을 상징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그 연구결과에 대하여 전통적인 구석기연구자들은 그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선 결과를 얻기 위한 기준을 전통적인 형태학 분석에 국한시켰다는 점이며, 둘째, 자의적인 형태학적 기준으로 설정된 자료를 수적으로 접근해 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러시아 구석기학계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비판하면서도 전통적인 러시아의 이론체계와 접합하여 소위 '종합이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구석기학자들은 다양한 과학적 방법론, 철학적 혹은 사상적 이론을 종합하여 인류문화를 복원하는 것을 현대고고학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李憲宗, 1995). 이러한 인식이 바로 종합이론을 체계화 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다. 러시아고고학 특히 구석기시대의 연구에 있어서 자연과학의 적용이란 결국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적용의 폭이 계속 넓어질 것이다.

Ⅲ. 자연과학의 적용

구석기시대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 연구방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의 도움없이 그 당시 문화의 해석이나 구체적인 행위결과를 분석할때 많은 허점을 남겨놓게 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구석기학자들은 자연과학자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현대 구석기연구에서 인류문화를 복원하는 과제를 중요시하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현상이다(Деревянко, Дергачева, Петрин, 1994).

2) 홀류슈킨은 최근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 연구소에서 자연과학자 특히 다수의 컴퓨터공학자, 수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섹터를 만들어 독립하였고 1994년 이래 그 섹터를 이끌고 있다. 이 섹터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고학적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많은 저서를 출간하고 있다. 그의 섹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러시아의 고고학(崔夢龍·李憲宗, 1994)에 서술한 바 있다.

구석기시대의 연구에서 자연과학자들과의 협력관계는 발굴이 시작되면서 부터 시작되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구석기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발굴현장에 지질학자, 생물학자, 고생태학자, 토양분석학자, 형질인류학자 등 다양한 자연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나 학자들 간의 의식 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예를들어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지질학의 경우 바옌느이 고스피탈 유적, 아폰드바 가라 유적 등 19세기 말 부터 발견된 구석기시대유적을 연구할때 마다 항상 함께한 학문분야이다. 러시아에서 출판되는 모든 구석기시대에 관한 저서에는 각 지역문화를 설명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지질학적 성격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Мочанов, 1977; Деревянко, 1983; Васильевский, Гладьшев, 1989; Абрамова, 1991; Стратиграфия..., 1991). 따라서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에서는 구석기시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별로 4기 지질학과 자연환경에 대한 연구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Центлин, 1979; Кузьмин, 1994; Деревянко, Маркин, Васильев, 1994. 등).

발굴현장에서는 고고학자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자연과학자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지질학자와 지형학자들은 유적과 그 주변일대의 지질학적 성격, 유적형성문제, 지층의 구조 및 형성과정을 조사하며, 인류학자는 동굴유적이거나 석회질 퇴적이 잘 남아 있는 지역에 있을지 모르는 인류의 뼈나 이빨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석기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고생태학자나 고생물학자, 토양학자, 고기후학자는 동물상.식물상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여 이 유적에 인류가 활동하였을 당시의 자연환경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물론 극동지역의 경우 토양의 조건상 구석기시대 발굴에 고생태학자나 인류학자들이 참가하는 예가 드물다. 하지만 시베리아의 다른 지점의 발굴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지질학자, 지형학자, 지리학자, 고식물학자, 고기후학자들이 참가한다. 자연과학자들은 대체로 고고학자들과 함께 발굴조사에 참가하게 되면 현 발굴지점 뿐 아니라 그 지점을 기점으로 그 주변 지역 일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한다. 자연과학자들은 그 과정에서 이 유적과 동일한 퇴적환경과 그 유적이 형성된 전후 시기의 여러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이러한 조사가 거의 한시춘 내내 이루어 지며, 그 결과는 발굴이 종료되는 즈음 구석기학자들과 유적이 발견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질연대 비교를 시도하는데 자료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여건이 허락되는 한 다른 고생태학자, 고생물학자, 토양학자 등 다른 관련 자연과학자들과도 함께 슬라이드나 비디오를 보면서 세미나를 갖는다. 노보시비르스크 소재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지부에 지질학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고학.민족학 연구소에서는 4기 지질학자, 고생태학자를 구석기 섹터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분야의 학자들은 주요 발굴에 대한 연구논문을 구석기학자들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고천문학자인 라리체프(V.E.Larichev)의 경우 그동안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예술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천문학연구소와 연합하여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학자, 건축학

자들과도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를 갖고 있다.

발굴과정에서 러시아 구석기학자들에게 있어서 유적의 형성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의 작업은 절대연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다. 절대연대의 추적은 설혹 지금 당장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 지라도 후세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 이 방법만이 구석기시대의 편년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 구석기학자들은 구석기 유적의 발굴과정에서 거의 전 기간동안 절대연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많은 절대연대들을 각 유적의 문화적인 특성을 연구한 결과와 비교하여 유적들의 시간적 위치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무스테리안 이전의 유적들은 발열광 측정법과 고지자기측정법을 주로 사용하며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에 대해서는 탄소연대측정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탄소연대 측정방법의 발전으로 소량의 목탄만으로도 비교적 정확한 연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발굴 전과정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in situ*의 층위를 찾고자 노력하며 그 층위를 발굴할 때에는 석기뿐 아니라 목탄을 발견하는데 주력한다. 어쨌든 필자가 유학기간 내내 선배 학자들이나 동료들이 가능한한 최대한의 절대연대를 추적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늘상 보아왔다. 필자가 직접 발굴에 참가한 바 있는 데니소바 동굴, 카라 봄유적, 우스트-카라콜유적, 까민나야 동굴유적 등 알타이 소재 유적들은 모두 다수의 절대연대를 가지고 있거나 계속 절대연대를 측정하는 과정에 있다(Journal of Altaica, 1992; 1993a; 1993b; 1994). 1994, 1995년 두해 동안 극동의 블라가베센스크를 가로 지르는 부레야강에 위치한 말퇴이 쿠룩타치유적을 발굴할 당시 예산도 풍부하지 않았으나 당시 발견된 노지들과 그 주변의 지층에 남아 있는 소량의 목탄을 수습하여 다수의 절대연대를 얻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은 종합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모아져 출간되고 있다(Палеолит СССР, 1984; Мочанов 외, 1991; Кузьмин, 1994).

발굴이 종료되는 10월이 되면 대부분의 러시아 학자들은 연구소에 모인다. 그때부터 12월 중순경까지 그동안 발굴된 유적들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각 섹터별로 가을-겨울-봄까지 이어지는 세미나도 시작된다. 특히 10-12월까지는 각 섹터별로 그해 발굴된 유적들의 현황을 발표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데, 발굴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유물이나 유적의 성격 등 전반적인 것 부터 세부적인 것들 까지 대부분 이때 공개된다. 당시 제기된 문제들은 각 섹터별 토론을 통해 해결한다. 구석기시대의 경우 자연과학자들도 함께 참가하여 그들의 조사결과도 발표한다.

발굴이 끝난 이후 '실험실고고학자'들의 연구가 함께 진행된다. 그중 대표적인 작업이 사용흔 분석(Traceology, Usewear analysis), 실험고고학적 연구이다. 보통 실험고고학자나 사용흔학자들은 자신들의 발굴을 시도하면서 발굴기간 내내 유적 주변을 돌며 유적에서 발견

되는 석기의 모체인 석재들의 발원지를 찾는다. 또한 동일한 석재들이 수습되면 발굴과정에서 드러난 몸돌과 석기상에 보여지는 여러 기술-형태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석기제작과정을 실험고고학적 차원에서 복원해 본다. 이 연구방법은 ‘범죄고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존의 유물을 보고 그 유물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실험을 통해 논리적으로 추적해 가는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 또한 현장에서 만들어진 석기들을 가지고 실제 여러 사용행위를 시도하므로써 그 석기상에 남아있는 다양한 사용흔을 검토한다. 물론 현장에서 고배울의 전자현미경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보통 100배 정도의 단순한 생물학 현미경을 가지고 작업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볼코프(P.V.Volkov)와 작업한 바 있는 拙稿 <석기의 기능분석의 목적과 대상>에서 언급된 것 처럼 발견된 유물에 대한 개략적인 사용흔 분석도 실시되며, 실험실에서의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요석기와 보조석기를 구별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Volkov, 李憲宗, 1993).

물론 아직까지 사용흔분석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아 모든 유적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흔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많은 연구소와 대학 발굴단에 사용흔학자들이 한,두명씩 포함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사용흔 분석연구는 아직까지도 축광의 전통적인 생물학 현미경을 주로 사용하던 고전사용흔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방법은 세메노프(S.A.Semenov)-카라프코바(G.F.Korovkova)로 이어지는 상-페테르부르크 소재 러시아과학원 물질문화역사연구소(Институт истории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РАН)를 비롯한 러시아 전역의 여러 연구소에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킬리(L.H.Keeley)의 직광에 의한 다배울, 고배울 전자현미경에 의한 연구로 미세흔(microwear)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가능해 지면서 석기로 작업한 재료에 대한 분석도 할 수 있게 되었다(Volkov, Lee Heon-jong, 1993). 이 연구방법은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지부 고고학.민족학연구소(ИАиЭ РАН)를 비롯한 일부 고고학연구소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고학.민족학연구소에서는 ‘Olympus BHT-M’를 사용하는데 금속광물들을 관찰하는데 자주 쓰이는 전자현미경이다.

이와같이 러시아구석기 연구에 있어서 자연과학과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나라 못지않게 밀접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이 가능한 것은 러시아 과학원의 조직체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지부 내에만도 80여개 연구소가 있으며 이들 연구소 간에는 매우 긴밀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소들은 아카뎀 가라독이라는 작은 도시 안에 대부분 모여 있어서 어떠한 일정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 간에 혹은 연구소들 간의 협력이 쉽게 이루어진다. 더욱이 최근에는 이들 연구소들 간에 컴퓨터 통신망을 설치하고 있어서 그들의 정보교환 및 협력연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자연과학자들의 자세도 우리가 그들의 학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구석기 학자들은 구석기시대 연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연과학적 지식에 대하여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더 이상 깊이있는 지식을 갖고자 하지는 않는다. 전문적인 부분은 사실 자연과학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문화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으며 자신들의 결과는 자연과학적인 적극적인 해석에 국한된다. 자연과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자료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은 철저히 구석기학자들에게 맡긴다.

IV. 맺음말

러시아 고고학자들은 이미 언급했던 것 처럼 문화-역사적 접근방식, 문화복원, 선사시대의 역사화 라는 명제하에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이끌어 오고 있다. 선사시대에 관한 한 고고학의 도움없이 당시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학은 고고학의 한 부분에 속하기도 한다. 러시아에서의 고고학은 독자적인 학문이면서 인간의 역사를 밝히고 그것을 복원하는 역사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 고고학자들의 이러한 사고의 배경은 연구대상인 각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치적인 경계선으로서의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지역의 예를 들자면 5-6세기에 고튜르크인들이 시베리아에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문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었다. 즉 러시아의 전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를 사회발전단계에 입각하여 설명한다든지, 문화-역사적 해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문헌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학 보다 고고학의 연구결과가 더 중요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고고학은 일찍부터 그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학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더욱이 구석기시대는 오직 고고학적 자료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시대이다. 또한 그 속성상 자연과학과의 협력이 없이는 인류문화의 복원이라는 현대고고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구석기시대를 연구함에 있어서 자연과학은 구석기시대인이 남겨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의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앞으로도 그 과제를 위하여 더 많은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을 개발, 접목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문

- Volkov P. 李憲宗, 1993. 「석기의 기능분석의 목적과 대상」 『한국상고사학보』 (서울) 14.
李憲宗, 1995. 「後期舊石器時代の 研究方法에 대한 檢討」 『석계 황용훈교수 정년기념사학
논총』 (서울).
崔夢龍·李憲宗, 1994. 『러시아의 고고학』 (서울).

● 영문

- Journal of Altaica issue 1*, 1992. AIC, Novosibirsk.
Journal of Altaica issue 2, 1993a. AIC, Novosibirsk.
Journal of Altaica issue 3, 1993b. AIC, Novosibirsk.
Journal of Altaica issue 4, 1994. AIC, Novosibirsk.
Volkov P., Lee Heon-jong 1993. The Recent Traceological Investigation in Northern
Asia,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ical Society* Vol. 13, Seoul.

● 논문

- Абрамова З.А., 1991. Палеолит Енисея(예니세이의 구석기시대), -л.
Васильевский Р.С., Гладышев С.Ф., 1989. Верхний палеолит Южного Приморья(남부 프리모리에
의 후기구석기시대), Новосибирск.
Деревянко А.П. 1983. Палеолит Аольного Востока и Кореи(극동과 한국의 구석기시대),
Новосибирск.
Деревянко А.П., Фелингер А.Ф., Холюшкин Ю.П., 1989. Методы информатики в археологии камен-
ного века(석기시대 고고학에서 정보자의 방법), Новосибирск.
Деревянко А.П., Маркин С.В., Васильев С.Ф. 1994. Палеолитоведение(구석기학), Новосибирск.
Деревянко А.П., Дергачева М.И., Петрин В.Т. 1994. Реконструкция условий жизни палеолити-
ческого челевека в среднегорном Алтае - на примере стоянки Кара-Вом -(중부
고르노이 알타이에서 후기구석기시대인의 생활복원 - 카라-볼유적을 예로들어 -),
Journal of Altaica issue 4, AIC, Novosibirsk.
Ковеншников Е.А. 1992. Историография археологии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시베리아와
극동의 고고학사), Красноярск.
Клейн Л.С. 1991. Археологическая типология(고고학의 형식학), -л.

- Кузьмин Я.В. 1994. Палеогеография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 Приморья в эпоху камня(프리모리에 석기시대 문화의 고지리학), Владивосток.
- Мартынов А.И., Шер Я.А. 1989. Методы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고고학 연구 방법), Москва.
- Мочанов Ю.А. 1977. Древнейшие этапы заселения человеком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북동아시아 거주인들의 가장 오랜 단계들), Новосибирск.
- Мочанов Ю.А., Федосеева С.А., Константинов И.В., Антипина, Аргунов В.Г., 1991.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Якутии(야쿠티아의 고고학 유적), Новосибирск.
- Палеолит СССР(소련의 구석기시대), 1984. Москва.
- Стратиграфия, палеогеография и археология юга Средней Сибири(중앙시베리아 남부의 지층, 고지리학과 고고학), 1991. Иркутск.
- Холмошкин Ю.П. 1981. Проблемы корреляции позднепалеолитических индустрий Сибири и Средней Азии(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 후기구석기시대 석기산업의 상관관계 문제), Новосибирск.
- Центлин С.М., 1979. Геология палеолита Северной Азии(북아시아의 구석기 지질학), -М.